

정치 사상

1. 사상의 혼란극은 한국사 회

80년대를 뒤로 하고 21세기를 향하는 한국사회는 아직도 심각한 정치적, 사상적 갈등과 혼란을 겪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할 지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지도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동안 집권보수세력에 의해 추구되어 온 '근대화' 정책은 비록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이룩해 놓았지만,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계급적 모순과 정치적, 사상적 대립을 수반하고 첨예화시키는 것이었다. 이같은 집권보수세력의 발전정책에 저항하는 진보세력은 민족, 민주, 민중적 발전대안을 요구하며 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위기가 돌발하고 이것이 한반도에 충격을 던지게 되자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 흔히 '맑스주의의 위기'로 상징되는 이같은 상황변화는 진보세력의 발전대안을 상당한 정도로 무색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진보세력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와함께 진보세력이 포괄하고 있던 내적 이질성, 즉 민족적, 민주적, 민중적 요소들과 혁명적, 개방적 요소들은 한층더 가시적으로 분화되고 그 일부는 분해되어 보수세력의 헤게모니에 급속히 휘말려 들기 시작했다. 진보세력에게는 남북통일, 자립경제, 자주국방 등의 민족적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어떤 내용의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인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는 과연 무조건 바람직하나,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바람직할 것인가, 그런 사안을 이루어내는 것은 실천적으로 가능한가의 등의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진보세력 내부의 이질적 요소들은 그 해답을 각기 다른 방향에서 찾아 나가고 있다.

II. 해방후 한국사회의 사상적 좌표를 규정해온 현실요인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발전과정과 이데올로기형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외세라고 할 수 있다. 중국대륙의 오랜 변방국가로부터 제국주의 일본의 지배를 거쳐 미국에 의해 해방된 한국사회는 미국의 절대적 영향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된다.

세계대전을 통해 구축된 세계사적 냉전체제의 첨병 미국과 소련

의 긴장관계는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했으며, 남북한 역시 긴장관계 속에서 각자 다른 사회체제로 발전해 가게 되었다. 이와같은 외세의 영향과 분단상황 속에서 남한에 수립된 정권은 친미사대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었다. 국가권력의 이같은 성격은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사상적 판도와 갈등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친미사대주의와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유교적 권위주의, 반공주의적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의 등 크게 세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40여년 이상 심한 사상적 갈등을 겪으며 발전해 왔다.

첫째, 해방이후 한국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여진 것이 미국이라는 국외적 요인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며, 이러한 사상은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문화적 전통이었던 유교적 권위주의와 커다란 갈등을 빚어내면서 부분적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러나 문화적 전통의 강고한 힘은 이념생활의 세계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기 보다는 공식적인 제도로 형식만 갖추거나 '이상문화'로서 사실상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에 있어 왔다.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은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중국, 소련 등을 통해 유입된 사회주의사상과 크게 충돌했다. 특히 해방직후에 실행된 '좌우대립'은 반공주의의 성격이 강했던 미군정이 좌파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권력행사를 함으로써 조정되었으며, 5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좌파가 제압되고 반공주의가 확립되었다.

둘째, 한국사회의 사상적 좌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국내적 요인은 친미사대주의적 국가권력이었다. 박정희정권은 사회적 혼란과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산업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산업화정책은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정치, 군사적 지원과 자본, 기술 등 경제면에서의 지원을 받으며 추진되게 되었고, 산업구조 및 계급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자본과 산업노동자계급이 형성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층이 광범하게 분해되고 도시빈민층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권력은 국내적인 지지기반을 상당한 정도로 구축했지만 여전히 그 위에 군림했으며, 반면에 사회불안요소도 증대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발독재를 정당화하는 사상 및 반공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학생과 지식인층은 개발독재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으며, 국가권력은 그것의 비승용을 비판하며 탄압을 일삼았고 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유교적 권위주의사상(총효사상,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대부분 반공주의를 이용하여 탄압하였다.

셋째, 한국사회의 계급세력들은 70년대말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의 절대적 영향권 하에 놓여 있었다. 이 시기의 자본축적과정은 국가권력의 경제계획과 선별적 특혜

제공, 억압적인 노동통제정책을 통한 장시간, 저임금노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가권력의 특혜 및 압제의 노동력에 대한 가혹한 착취는 국내 자본가들의 자본축적을 가능케 하였다. 자본가들은 정치권력에 예속된 가운데 특혜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재벌, 즉 독점대자본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중소자본가로 머물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자본가 계급분파는 독점대자본가 계급분파와 달리 국가권력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독점자본 분파에 대해 축적과정의 비도덕성을 비판하고 국가권력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굴종하고 정면대전은 가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공평한 경쟁과 자본축적,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야망을 펼치었으며, 이들은 삼자관계는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넷째, 산업화의 진전이 거듭되

며갔다. 이 무렵에 한국사회의 전면에 부상한 민중세력은 대중운동조직과 독자적인 언론, 출판매체들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급진적인 사상들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반공주의를 크게 무력화시켰고, 맑스-레닌주의 혁명이론과 사상은 일시적으로나마 이론, 사상계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III.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 정책 변화와 맑스주의의 권위주의적 헤게모니

한국의 시민사회는 특히 87년의 박정희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전국에 걸친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적 위시사태는 5공 정치권력의 지배배당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6공화국을 탄생시켰다.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야당정치인 등의 저항을 무마하고 민주화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출범한 6공화국은 기왕의 국가권력과 판이하게 구별되는 위상 속에서 지배의 정당성과 통치권의 회복을 위해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국가권력은 각종 언론매체들의 신화를 수월하게 하고 지원하느라, 한편 사회단체들을 조직, 후원하는 등 자생적인 여론형성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국가권력은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통제하기 보다는 직접 시민사회 내부에서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관성에 선 급진주의이론과 사상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려 하였다.

그러하여 국가권력은 종래보다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 반공주의와 안보논리, 경제성장 만능주의의 이데올로기는 후퇴시키고 그 대신 자유민주주의나 점진적 개혁주의, 신진국 도약을 위한 안정, 경제위기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함과 동시에 설득력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데올로기들을 고구, 정그러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해 나갔다. 국가권력의 이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정책은 특히 독점자본가 계급분파와 중소자본가 계급분파, 그리고 도시 중산층의 호응 속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 수 있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초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의 여론형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것은

지배없는 정권 정당성

학술특집 한국사회 지배이데올

점자본 분파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소자본가 계급분파와 도시 중산층도 이 점에서는 민중세력에 부분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그 결과 독점자본가 계급분파는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자본가 계급분파와 중산층의 이해관심은 민중세력과 일치하는 부분보다 불일치하는 부분이 더 컸으며, 시민사회 내부에서 민중세력의 헤게모니 확대를 차단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국가권력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정책이 노린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시민사회를 둘러싼 이러한 이해관심의 교차와 역학관계는 90년 이후의 중요한 정책변화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예컨대 일부 야당을 포함하는 3당합당을 통한 민주당의 출범이라든가, 국가권력의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강화 및 그 반대급부로 나타난 독점자본의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현대그룹과 통일국민당) 등은 주로 시민사회 내부의 민중 헤게모니와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이다.

물론 90년초에 이르러 민중세력은 계속되어 온 경제성장파와 그동안의 운동성과에 따른 개방화 및 시민사회 영역의 확대,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저항정신이 약화되고 사상적 혼란을 겪게 된다.

이를 계기로 특히 중소자본가 계급분파와 중산층의 사상적 입지가 크게 신장하게 되며, 이들은

심각한 동요, 이탈현상을 겪는 가운데 수세에 빠져 있다. 국내의 좌파이론과 운동은 시민사회가 미숙한 상황 하에서 국가권력의 강압통치에 대한 급진적, 정의적 저항의 성격을 강하게 띠며 출현했고, 이런 상황은 좌파이론과 운동의 이론적인 구제성, 개방성, 유연성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정치적 진출을 사실상 가능하게 했던 민중세력과 맑스주의는 시민사회 내에서의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중소자본가 계급분파와 중산층의 이해관심이 반영된 사상과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같은 헤게모니의 이변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국가권력의 입지약화에 따른 이데올로기정책과 독점자본가 계급분파에 대한 정책변화 등 우리 사회의 계급정치적 역학관계가 '내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사상관도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인가.

한국사회의 사상적 좌표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조건으로 영향을 끼쳐온 외세 등 몇가지의 중요한 현실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전망이 가능한 것은 우선 외세는 약화되고 국내적 요인들의 작용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독점자본 계급분파와-중소자본가 및 중산층의 이익을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는-통일국민당의 출현을 통해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 이 두가지 요인들을 통해 중소자본가 계급분파



치에 서도록 영향을 가할 것이다. 국가권력의 약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 페레스트로이카의 충격과 지속적인 개방화추세는 국가권력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측면에서도 유교적 권위주의를 약화시켜 나갈 것이며, 그 반면에 보수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진보세력은 사회민주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재편되어 갈 것이다.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을 공격하던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은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이 '이데올로기적' (표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로 '변신'해 감에따라 일부는 보수세력으로 융화되고 다른 일부는 급진적 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선회함으로써 내적 균형을 겪게될 것이다.

V. 한국사회사상판도 전망

그리고 이들은 진보세력 내의 온건파, 즉 사회민주주의적 실용주의노선과 결합하게 될 것이다. 진보세력의 온건파는 이들 자유민주주의의 분파 이외에도 급진주의가 주도했기 때문에 진보세력의 외곽

에 머물던 사회민주주의의 분파와 결합하는 가운데 진보세력 내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흐름은 보수세력이 중소자본 계급분파와 중산층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이동해 가는 한편, 본래의 자유민주주의의 세력도 분열, 재편되는 추세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명확한 구획이나 대립상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상적 대립구도의 불투명성은 민족주의의 신봉세력 사이에서도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족주의 역시 상당한 기간동안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좌파성향과 중도성향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를 내용으로 삼는 우파성향이 민족주의를 주도해가는 '우경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과 자본진출, 일본의 팽창정책, 남북관계의 개선, 계속되는 경제성장과 해외시장(북한 포함)의 필요성 증대 등은 진보세력에 의해 '반민족적'이라 비판받아온 국가권력과 독점자본 분파를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선회하게 만들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하는 이들의 우파적 민족주의가 민족주의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 팔 무 (한림대학교·사회학)

25th Anniversary
1952 - 1987
DAEWOO
Ваш лучший партнёр

대우의 역사(役事)는 끝없이 계속되고, 대우의 역사(歷史)는 항상 시작입니다.

은자의 나라(Hermit Kingdom)라는 좁은 울타리를 박하고 타 문명세계에 우리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면서 국제시장을 향해 대우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1960년대—

그때 우리를 경제 대상으로 여기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우는 이같은 타국가들의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내부에 팽배해있는 절망감은 오히려 희망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과 5명의 직원과 자본금 5백만원으로 시작한 대우는 세계는 넓고, 그 세계와 함께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대우의 동력은 타기업의 국제화에도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으며 한국의 경제구조를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우리의 기술을 로우테크에서 하이테크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고독이나 외로움이란 단어는 대우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대우가 창립과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에 뜨거운 집념을 보인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만이 우리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그렇게 할 때 내연가 대우가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대우는 단순한 상품교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개발 차원에서 곧바로 해외지사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무역업체가 세운 최초의 해외지사로 기록되는 대우의 시드니 지사와 싱가포르 지사—

이 두 지사는 도전정신과 용솟음치는 젊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우역사의 한 페이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인자로서 출발한 싱가포르 지사의 차장이었던, (주)대우 운영직 사장은 초창기 대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1인자, 말만 들어도 참 고독하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시의 지사는 대부분 한 사람이 도맡아서 정성없이 뛰어 다녔지요. 그래서 ‘고독’이나 ‘외로움’같은 말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두들 해외개척의 화신들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한국이었고 대우였지요. 우리는 그때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가를 알았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첫번째가 대우의 74번째

동구권 시장개척은 대우의 해외개척사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80년대 말 동구의 개방과 개혁의 흐름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연이어 소련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세계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우는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국 최초로 동베를린 지사를 개설했습니다. 대우의 74번째 지사인 동베를린 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구권 무역지사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사에도 하나의 큰 획을 그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 그것을 계기로 대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체코 프라하, 구 소련의 모스크바와 불가리아의 소피아에도 지사를 개설하여 명실공히 해외개척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 주었으며, 오늘날 닫힌 세계를 열려 세계로 만드는 대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대우가 갈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 요하네스버그에서 유럽의 심장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아시아 경

계의 상징 북경을 거쳐 과거 ‘철의 장막’의 관문이었던 하바로프스크에 이르기까지 대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제일 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우의 84개 해외지사— 전 세계에 펼쳐진 대우의 일터에는 오늘날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이 펄펄 쏟아집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오지에서 우연히 르망차 한 대를 목격했을 때 어떤 감회에 사로 잡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시장을 개척해서 판차가... 짜릿하고 가슴을 찢어지. 그냥 눈물이 펄펄 쏟아집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리는 대우 자동차 한 대를 쳐다보며 눈물을 펄펄 쏟았다는 (주)대우 추호석 이사의 말처럼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시장개척의 차원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르쳐준 곳입니다.

한 예로, 리비아는 화정회교국으로 대우가 진출할 당시 북한공관 이 설치되어 있던 미수교국이었습니다. 석유부국이었던 축적된 기술이 없어 해외기업을 통해 건설사업을 해결한다는 기회를 포착, 대우는 적용하기 힘든 자연환경을 무릅쓰고 리비아 건설시장에 본격 상륙했습니다. 리비아에서 대우가 최초로 수행한 가리우니스와파대학 신축공사를 계기로 호텔, 고속도로, 비행장 등을 수주했고 '80년대에는 트리폴리와 뱃가지에 1만 3천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우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그 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91년에는 파키스탄,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서 국내 총수주액의 38%를 점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우즈(Azzou) 비행장을 건설할 때는 정부차로들이 예고없이 건설현장을 방문, 10여일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생활하기도 해 아프리카 오지에 한국의 의지를 심고 민간사절로서의 뜻을